



해방동이 사부대중에게 듣는다

광복 50주년 특집

“일본 흉내내기 문화 반성 통해 한민족 전통 살리는 새출발을”

광복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았다고 하나 기형으로 태어난 반식민주의 민족애환은 여전하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한 불안과 부자유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광복50주년, 일제 잔재의 건들거림이 문제가 아니라 일제 부패가 아니라 자 동차나 전자제품 하나 만들지 못하고, 민족 전통을 되살리는 데는 한국불교가 일본식 의상에 헤어스타일까지 흉내내 는 경제적·문화적·정신적으로 물들어

범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가는 현상을 반성하지 않고 방종한다면 새로운 종속관계로 동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올해는 단순히 들뜬 축제에 정신 팔 것이 아니라 민족 의식을 되살리는 전통문화 화를 개발하여 인류 문화의 창조에 새로운 전기가 되는 광복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조국광복과 동시에 불려 온 서양의 물질 만능과 정신적 퇴폐에 잠식되고 있는 한 민족 전통을 되살리는 데는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 찬란한 문화와 과학의 명예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불교 대사회적 역할 강화로 시대정신 이끄는 목탁울려야”

해방 이후 50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겪고 내리막으로도 많은 아픔을 견뎌야 했다. 불교계 또한 수많은 고통속에서 민족의 시대정신을 이끄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나 자신에게 ‘해방동이’란 의미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 나이를 먹어 가는 한 수행자로서 급변하는 것은 남다르다. 불교의 전통에 숨을 지키고자 애쓰는 입장에서 지난 50년간을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아쉬움

동희 스님
(법패·적법 이수자)



의 세월이 아니었나 싶다. 많은 문화 예술의 마당이 펼쳐져 왔고 불교음악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의 관심과 각 종단의 미약한 관심으로 세월에 비해 발전의 폭은 넓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나 온 50년 보다 앞으로의 50년에 더 큰 기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불교 포교의 현장에 삶의 애환과 의욕을 어루만지는 문화적 요소가 충분히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목탁소리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신라범종·고려불화등 민족유산 남의 땅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1985년을 광복 반세기라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 유산을 되찾고 한일 과거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에 진지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본다.

우리 한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은 찾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고단했던 우리의 역사가 일러주듯, 많은 시련을 거치는 동안 귀중한 문화유산은 이룰 해아릴 수 없이 말할, 약탈 당한채 오늘에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임이 담긴 신라범종, 고려불화 등

김문길 교수
(부산외대 일본어과)



크고 가치있는 문화재들은 대부분 일본에 산재해 있다. 이런 우리 문화재들 중에는 아직 조사, 발견되지 않은 것도 엄청나 하루빨리 관계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하여 해외반출 우리문화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 광복 50주년을 맞는 우리국민들의 엄숙한 사명이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로 끌려가 아직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 정신대 할머니들의 회복기 어려운 삶과 정혼에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일본의 성의있는 배상을 촉구한다.

“생명경시·이기주의서 벗어나 한국인상 재정립에 나설 때”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8·15광복절을 맞아 우리의 반세기 삶을 뒤돌아 볼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의 눈부신 성장 발전은 가히 놀랄 정도이다. 특히 ‘잘 살아 보자’는 온 국민의 일념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해 왔으며 그 결과 GNP 1만불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뒀안길에는 이기주의·부정부패의 만연, 윤리(倫理)와 도덕성(道德性)의 결여, 가치관(價値觀)의 붕괴, 생명경시 풍조의 전

황옥자 교수
(동국대 불교이동학과)



민적행동이 독버섯처럼 퍼져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 해방 반세기를 맞아 책임감 없는 이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 한국인상을 정립하여 해방의 참뜻을 길러 나가야 할 때가 왔다.

여기에 불교적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요구된다. 잃어버린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은 바로 불교를 통해 뿌리 내려야 할 덕목인 것이다.

광복 참 뜻 되새기는 문화행사 ‘다채’

애국지사 유물전·통일염원 조각전·민속품물전등 열려

8·15 광복 50주년을 맞아 조국광복의 참뜻을 되새기는 행사가 다양하다.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유골을 모은 ‘애국지사 유물전’이 지난 10일부터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유물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불교종도를 비판하는 만해 스님의 한시와 ‘임격정’의 작가 홍명희씨가 만해스님에게 보낸 친필 편지 등 1백17점이 전시된다.

또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의

지를 조형작품으로 보여주는 ‘광복 50주년 기념 통일염원의 조각전’이 지난13일 문을 열어 오는 20일까지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분단에 대한 김영원, 전수천, 고정수씨등의 예술적 통찰을 담은 작품 50점이 선보이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 국립중앙박물관(구 조선총독부) 건물 꼭대기의 돌 철거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목정배교수(동국대)의 시에 국립국악관현악단

박범훈 단장이 곡을 쓴 ‘다시 찾은 빛, 천동소리’ 무대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광복전후 1백년간 민속품물 자료 및 유물을 특별전시하는 ‘근대백년 민속품물전’도 9월1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또한 서울 6백년 기념 전시관에서는 오는 22일까지 독립운동과 광복 반세기 역사를 담은 4백여점의 사진을 선보이는 ‘광복 50주년 기념 국내의 사진전’이 소개된다.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근대 백년 국



◇ 지난 9일 인사동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 전’ 개막식에서 박찬갑씨가 ‘DMZ 한의 소리’를 공연하고 있다.

가 기록을 전시회’와 오는 15일 발간되는 ‘독립운동 총서’ 또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지난 9일에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범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 50주년 그후를 얘기하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DMZ(비무장지대) 기획 주제전’ 개막식을 가졌다.

도필선 기자

광복 50주년 특집 관계로 ‘이근후의 건강칼럼’ 쉽니다.

만화 법구경

• 늙음의 장
• 짙은 육신은
• 마디마디
• 뜯어지고



이제 많이 늙으셨수. 광복 50주년 기념식장에서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되찾은지 벌써 반세기!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발견된 이 나라의 부를 누리는 친일파가 있는 반면 광복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애국지사들은 만족한 예우를 받지 못한채 그들진 삶을 사는

그 현장을 이준PD가 찾아보았습니다

끼버러!

홍! 친일파가 있었으니가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됐지

아버지 이 책 보셨습니까?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세상이 다 아는 일 침묵을 지키시는건 피로움만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놈아! 내갈증이 땀 안나고

보라, 이 꾸미 놓은 몸통이들 육신은 완성된 상처 덩어리 병치레 꿀입 새 없고 욕망에 타오르고 견고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썩어

내음이 누구 덕에 호강하고 있는 줄이나 알고 그따위 소리나

이 몸은 늙어서 시들고 터지기 쉬운 절명의 주머니 짙은 육신은 마디마디 뜯어지고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내가 늙고 기운 없으니까 내놓으라

목숨이 다해 정신 떠난년 가을 들녘에 버려진 표주박 실은 썩고 흰 뱀나귀만 뒹굴텐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난 잘못 한것 없나

때로써 성곽을 이루고 살과 피로 포장이 되었다 그 안에 늙음과 죽음 오만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성아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짐을 짰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을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불꽃이다. 그러나 불꽃을 내리,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과 디로 브라비(appa deepo bhav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42장경은 불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불타의 가르침을 모아 42권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불타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42장경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에도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놀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형 친구들,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부리는 일이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로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잊혀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키려 큰 재물을 행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소 라즈나워 경의 / 황광우 이광훈 옮김
신국판 전2권 각권 7,500원